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직업계고 교육 운영 방안

강경균*, 백민정**, 윤지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e-mail: kang@nypi.re.kr

Activation Plan for Vocational High School Education Through community Connection

Kyoung-Kyoon Kang*, Minjung Baek**, Ji-A Yoo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AIS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직업계고 교육 운영 사례 중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운영 사례를 탐색함으로써, 이와 연계한 직업계고 교육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계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부처의 사업 운영 내용 및 세부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직업계고 교육 우수 사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직업계고 교사 10명을 전문가로 대상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계고 교육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상생과 긴밀한 연계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자기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직업계고등학교의 공간의 공유를 통한 효율적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계고 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계고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 및 소규모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고, 고교학점제 정책도입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 직업계고 운영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대한 성과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1. 서론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함께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은 지역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며, 참여를 통해 서로 배움으로써 성장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과정을 배운다. 따라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활동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주어지는 교육과정’ 속에서 수동적인 사고를 통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구성하며 성장해 나아간다. 결국 학교를 넘어 다양한 공간에서 배움의 주체가 되어 사람들과 어울려 배울 수 있으며, 학생은 수동적인 존재로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닌 지식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최근 교육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여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형 교육자치 협

력지구’ 사업을 통해 교육청-지자체가 공동협력으로 마을 교육공동체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1]. 직업계고에서도 학생이 주민을 가르치면서 배우고, 학생 발명 및 창업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며, 더 나아가 지역 기업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업계고의 전문기술 인재 양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기술인을 학교의 교수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기술전수를 위한 교내 명장 공방을 운영하는 ‘명장공방 지원 사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학교 기업 등을 교내에 설치·운영하여 현장 실무교육 및 창업교육을 강화한 사례 등을 볼 수 있다 [2]. 그리고 직무발명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기업 문제 해결 및 취업 연계[3], 이웃과 함께하는 학교를 주제로 한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4]’이나 직업계고의 공동실습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중학생 진로체험, 지역사회 주민 교육 등은 직업계고와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의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직업교육 운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사업의 일

환으로 직업계고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계고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한 마련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직업계고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계고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2.1 연구 개요

지역사회 기반의 직업계고에서 운영할 구체적인 교육 운영 내용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다양한 직업계고 내 계열(교과군)을 고려하였으며, 직업계고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경험한 교사를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현장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직업교육 관련 전문적 지식과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정부 지원 사업에 다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소속 기관의 지역 및 전공, 계열의 대표성과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 의견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10명이며 그 대상자는 Table 1과 같다. 자료 수집은 2019년 9월 6일부터 2019년 9월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의 내용은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의 시사점을 토대로 '교육과정 및 비교과 활동', '공간활용', '멘토링', '직업계고 관련 사업'의 내용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략 등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타당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효율적 방안을 협의하였다.

2.2.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직업계고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기관의 사업들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직업계고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직업계고 교사 10명을 전문가로 선정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계고 교육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상생과 긴밀한 연계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가 지역의 지자체, 교육청, 단원학교, 상공회의소 등과 직업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직업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을 네트워크화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업교육 거버넌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업계고 혁신 지원 사업',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마을교육 공동체', '청소년 성장 지원' 등의 정부지원 사업들과 함께 어우러져 지역주민들과 함께 평생교육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자기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직업계고는 지역의 기업의 요구와 지역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실습을 운영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하여 취업에 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계고에서 방과 후 활동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우러져 진로직업교육, 평생교육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 및 졸업생을 포함한 지역주민 중 전문기술을 가진 명장 및 숙련기술인을 활용하여 학교 프로그램의 교수자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 기술인으로서 삶에 대한 멘토로서 함께 협력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와 직업계고등학교의 공간의 공유를 통한 효율적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 학교의 유휴 공간 시설을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민과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직업계고등학교를 지역주민과의 교육적 소통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계고의 공간의 개방은 지역사회에 직업계고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대학교, 지역 기업,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첨단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공간을 직업계고와 협력함으로써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의 첨단장비를 체험하고 전문기술을 익힘으로써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 [1] Ministry of Education, <https://www.moe.go.kr/boardCnts/>, Dec, 13, 2019.
- [2] K. K. Kang, M. J. Baek "Exploring Activation Plan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2, pp. 689-698.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12.689>
- [3] HIFIVE, <http://www.hifive.go.kr/front/>, Mar, 24, 2020.
- [4]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https://www.ip-edu.net/hifive>, Mar, 24, 2020.